

대한축구협회 클린스만,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특정감사 결과 (요약)

◆ 축구협회는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 관련한 전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준수하였다고 주장하나,
(클린스만 감독 선임 시) ①전력강화위원회 기능 무력화하고, ②전력강화위원이 해야 할 감독 후보자 면접(2차/최종)을 회장이 진행했으며, ③이사회 선임 절차를 누락
(홍명보 감독 선임 시) ①권한 없는 자가 최종 감독 추천하고, ②면접 과정이 불투명·불공정하며, ③감독 내정·발표 후 형식적으로 이사회 서면결의
또한, 위와 관련한 논란이 발생되자 허위 반박자료나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였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사건 개요

- 축구협회는 파울루 벤투 감독의 뒤를 이을 남자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을 위해 2023. 1. 4. ▲▲▲를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별표 1]의 '클린스만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을 거쳐 2023. 2. 28. 위르겐 클린스만을 선임 남자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선임·발표
- 약 1년이 지난 2024. 2. 16., 축구협회는 2024 아시안컵 성적 부진 및 선수단 관리 문제로 클린스만을 국가대표팀 감독에서 경질
- 축구협회는 2024. 2. 20. △△△ 축구협회 대회위원장을 전력강화위원장으로 선임하고 [별표 2]의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을 거쳐 2024. 7. 8. 홍명보 울산HD 감독을 선임 남자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내정·발표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 축구협회 「정관」 제26조(임원의 직무), 제30조(선임임원의 사임 및 해임), 제43조(의결사항), 제49조(구성과 조직), 제52조(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
- 「축구국가대표팀 운영규정」 제12조(감독, 코치 등의 선임)
- ※ 축구협회는 클린스만 감독 선임 과정에서는 '면접'이라는 표현을,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는 '면담'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감독 후보자 사전 인터뷰 질문지를 바탕으로 질문하고 답변 내용을 정성 평가 후 우선순위를 결정한다는 측면에서 '면접'에 더 가깝다고 판단되므로 동 보고서상에서는 '면접'이라는 단어로 통일함

③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클린스만 감독 선임의 경우〉

① 전력강화위원회 무력화

- 축구협회와 ▲▲▲ 위원장은 [표 1]과 같이 전력강화위원회가 구성되기도 전에 국가대표팀 감독 후보자 명단을 작성하고 에이전트¹⁾를 선임하여 후보자 접촉을 진행하는 등 처음부터 전력강화위원회를 배제한 채 선임 절차 추진
- 또한 전력강화위원들에게 권한을 위임받아 감독 선임 절차를 진행하기로 내부방침²⁾을 정해놓고 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전력강화위원회를 무력화

[표 1] 클린스만 감독 선임 시 전력강화위원회 운영 경과

일시	주요 내용
2023. 1. 4.	· 축구협회, ▲▲▲ 신임 전력강화위원장 선임 발표
2023. 1. 12.	· ▲▲▲ 위원장, 감독 후보군 61명 작성→ 23명으로 압축
2023. 1. 18.	· 후보자 접촉 에이전트 선임→ 감독 후보자 23여 명 접촉 시작
2023. 1. 19.	·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위촉(총 7명)
2023. 1. 25.	· 제1차 전력강화위원회 온라인 회의 - 감독 선임 기준 및 절차 논의 - 감독 선임 과정(후보자 추천 및 인터뷰 등)에 대한 권한을 ▲▲▲ 위원장에게 위임
2023. 1. 26. ~ 2. 9.	· 1차 온라인 면접(후보자 5명), 2차 온라인 면접(후보자 2명) 진행
2023. 2. 15. ~ 2. 24.	· 축구협회-클린스만 후보자와 계약 조건 협상 및 계약 체결(2. 24.)
2023. 2. 27.	· 제2차 전력강화위원회 회의 - 클린스만 감독 선임 경과 보고
2023. 2. 28.	· ▲▲▲ 위원장, 클린스만 감독 선임 발표

- 제1차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은 감독 선임 관련 권한을 ▲▲▲ 위원장에게 위임해 줄 것을 위원들에게 요청³⁾
- 또한 제1차 전력강화위원회 회의 결과⁴⁾ 감독 선임의 전체적인 과정을 위원장에게 위임하되, 필수적인 정보는 위원회에 반드시 공유 및 점검토록 하였으나,

1) ■■■은 2023. 1. 18. ○○○ Ltd.에 위임장을 보내 감독 후보자 접촉, 미팅 일정 조율, 계약 조건 협상 지원 등의 업무를 맡김

2) □□□은 감독선임 과정 전체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는 방침은 이미 축구협회 내부에서 세워져 있었고(회의 시작 전에 본부장, 위원장과 본인이 모여서 방침을 정함), 본인은 위원장과 본부장의 말씀을 보완하여 회의를 진행한 것이지 독단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함

3) □□□ : “덧붙여서 좀 말씀드리면, 본부장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해서는 ▲▲▲ 위원장과 저희 대한축구협회 사무국에 선임에 대한 위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2023년 제1차 전력강화위원회 회의록)

4) 2023년 제1차 전력강화위원회 회의록 중 주요내용(간사가 회의내용을 요약정리) 발췌

주요 내용
·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음으로 전체적인 과정을 위원장에게 위임하되 적절한 정보 공유는 필수 → 선임 과정의 특수성 때문에 전체 과정을 모두 공유할 수 없지만, 필수적인 부분 등은 공유할 것
· 일부 과정들이 비공개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하여 위원들의 양해 당부 및 위원장 전권에 대한 이해 필요 → 특수성을 인정하며 필수적인 정보는 위원회 반드시 공유 및 점검 필요

위원들은 감독 선임 과정에서 아무런 정보도 제공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

② 감독 추천 권한이 없는 회장이 2차(최종) 면접을 진행

- 회장은 [표 2]와 같이 2023. 2. 7. ▲▲▲ 위원장으로부터 감독 후보자 5명의 온라인 면접 결과를 보고 받고, 1, 2순위 감독 후보자를 직접 미팅하겠다고 하면서, 2023. 2. 8. ~ 2. 9. 회장 본인이 2차 온라인 면접을 진행

[표 2] 감독 후보자 온라인 면접 과정

일시	주요 내용
2023. 1. 26.	• 감독 후보자 5명으로 압축 및 온라인 인터뷰 일정 협의
2023. 1. 30. ~ 2. 1.	• 1차 온라인 면접(▲▲▲ 위원장, □□□)
2023. 2. 7.	• ▲▲▲ 위원장, 회장에게 1차 온라인 면접 결과* 보고 * (1순위) 클린스만- (2순위) ●●●- (3순위) ◎◎◎ - (4순위) ◇◇◇- (5순위) ◆◆◆
2023. 2. 8. ~ 2. 9.	• 2차 온라인 면접(회장, ■■■) * (1~2순위 후보자) 클린스만, ●●●
2023. 2. 15. ~ 2. 24.	• 축구협회-클린스만 후보자와 계약 조건 협상 및 계약 체결(2. 24.)

③ 최종 면접 과정 불투명

- 공정하고 투명한 지도자 선발을 위해 감독 후보자 면접 등 관련 자료는 기록으로 남겨 보관하여 하나,5) 1차 온라인 면접 때와는 달리 회장이 진행한 2차 온라인 면접 관련 자료는 남아있지 않아, 면접 내용과 최종 평가 결과를 알 수 없음

④ 이사회 선임 절차 누락

- 국가대표팀 감독은 전력강화위원회의 추천으로 이사회가 선임하여야 하나,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각급 대표팀의 지도자 선임 시 이사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6) 등으로 클린스만 감독 선임 시 이사회 선임 절차를 누락

⑤ 허위 반박자료 배포

- 축구협회는 2024. 5. 5. 'MK스포츠의 국가대표 감독 선임 관련 보도에 대한 대한축구협회의 반박'이라는 제목으로 언론에 반박자료를 배포하면서 클린스만 감독 선임 당시, ▲▲▲ 위원장이 복수의 후보자를 상대로 1, 2차 화상면접을 진행했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반박자료 작성·배포7)

5) 선발과정 및 결과는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5년까지 공개할 수 있음(축구국가대표팀 운영규정 제12조 제6항)

6) (■■■ 진술) 이전까지 각급 대표팀 감독 등을 선임할 때 이사회를 통해 선임하지 않은 것은 사실임. 다만, 지금까지 각급 대표팀 감독을 공식적으로 이사회를 통해 선임해본 적이 없고, 이사회를 대표하는 회장님의 보고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규정에 대한 별다른 인식 없이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았음

7) 2024. 5. 5. 축구협회 반박 보도자료 발체

- 회장도 2024. 2. 16. 클린스만 감독의 경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클린스만 감독 때도 61명에서 23명으로 좁혀지다가 최종적으로 ▲▲▲ 위원장이 5명을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정했다. ▲▲▲ 위원장이 5명의 후보를 인터뷰했고, 우선 순위 1, 2번 2명을 2차 면접을 진행했다. 최종적으로 클린스만 감독으로 결정된 것”이라고 발언하는 등 회장 본인이 2차 면접을 진행했음에도 ▲▲▲ 위원장이 2차 면접을 진행한 것처럼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함

〈홍명보 감독 선임의 경우〉

① 감독 추천 권한이 없는 ●●● 기술총괄이사가 최종 감독 추천

- ●●●(8)는 전력강화위원회 구성원이 아닌 축구협회의 기술본부를 총괄하는 기술총괄이사(상근직)로서, 감독 추천 권한이 없음에도 축구협회 회장 및 부회장으로부터 감독 선임 관련 후속 절차 진행을 위임받았다는 이유(9)로 [표 3]과 같이 최종 감독 후보자 3명과 면접을 진행하고 최종 감독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 보고하는 등 감독 추천 과정에 관여함
- 축구협회는 2024. 7. 22.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2024. 6. 30. 온라인 전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 이사가 위원들로부터 최종 감독 후보자 3인에 대한 ‘면담→협상→감독 내정 후 이사회 추천’의 후속 절차를 위임받았다고 설명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
- 2024. 6. 30. 온라인 회의에서 ●●● 이사는 최종 감독 후보자 3인에 대한 면접 진행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면접 후 위원들에게 결과를 보고하고 전력강화위원들과 감독 선임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공언(10)

◇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는 클린스만 감독 선임 당시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 2023년 클린스만 감독 선임 당시에는 ▲▲▲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장이 위원회를 이끌었습니다. 위원장은 위원회와 후보자를 줄여나가고, 복수의 후보자를 상대로 1, 2차 화상면접을 진행했으며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이는 협회에 전달되고 회장에게도 보고되었습니다.

- 8) ●●●는 2022년부터 현재까지 축구협회 지도자 전임강사로 근무하고 있고, 2023. 1. 18. 축구협회 이사(임원)로 취임하여 기술발전위원장직을 맡고 있으며, 축구협회 조직 개편 후 2024. 4. 15. 기술본부를 총괄하는 기술총괄이사(임원이 아닌 상근직)직도 겸직하고 있음. 다만, 홍명보 감독 추천 과정에서 전력강화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으로 위촉되지는 않음
- 9) (●●● 진술) ◆◆◆ 부회장이 저에게 “5개월 동안 감독 선임이 안 되고, 위원회 내부적으로 자꾸 유출이 되고, 전력강화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서 하기도 시간이 촉박하고 전력강화위원회의 역할도 다 끝났으니 기술총괄이사가 이 일을 진행해 나가야 한다”라고 저에게 지시하였고 저는 그 지시를 충실히 수행했을 뿐임. 규정상 감독 추천이나 결정 권한이 본인에게 있는지에 관해서는 제가 규정을 검토해서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의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 조직 내에서 부회장이 총괄이사인 제가 역할을 해야한다고 지시를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한국 축구를 위해서 빨리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 뿐이었음
(회장 진술) 추천 이후 계약협상은 협회에서 할 일이고 그건 내가 할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을 ●●● 이사에게 위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음. 이미 전력강화위원회에서는 추천을 했고, 그 이후는 협회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함

10) 2024. 6. 30. 온라인 전력강화위원회 영상회의록 내용 발췌

하였으나 이후 시간이 촉박했다는 이유 등으로 이를 지키지 못함¹¹⁾¹²⁾

- ●●● 이사는 2024. 6. 30.에는 위원들로부터 감독 결정 권한을 위임받지 못하였으나 2024. 7. 7.에는 위원들에게 전화로 이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2024. 7. 5. 이미 권한 없이 감독 결정을 한 이후 도의적 차원에서 전화를 한 것¹³⁾으로 확인되며, 일부 위원은 통화 내용은 ‘동의 여부’를 묻는 것이 아닌 ‘통보’였다고 밝힘
- 한편 축구협회는 2024. 7. 22.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 이사가 3명의 최종 감독 후보자들과 계약 협상까지 모두 수행하고 감독을 내정한 것으로 주장하나, 감사 결과 ●●● 이사는 연봉 및 계약 조건 등의 협상에는 관여하지 않았으며, 동 협상은 축구협회 행정지원팀에서 진행한 것으로 확인¹⁴⁾¹⁵⁾

[표 3] ●●● 기술총괄이사, 최종 감독 후보자 결정 과정

일시	주요 내용
2024. 6. 28.	• △△△ 위원장, 축구협회에 구두로 사의 표명
2024. 6. 30.	• 전력강화위원회 임시 온라인 회의 [※] (●●● 기술총괄이사, ☹☹☹, ∩∩∩, ≡≡≡, ≫≫≫, ≪≪≪ 위원, 기술본부장)
2024. 7. 3. ~ 7. 4.(스페인, 독일)	• 감독 후보자 2명 대면 면접 및 계약 협상조율(●●● 기술총괄이사, 기술본부장, ■■■■■, ■■■■■ 매니저) * (후보자) ▼▼▼, ▽▽▽

(●●● 기술총괄이사 발언)

- 화요일에 ▽▽▽, ▼▼▼ 대면면담하러 가겠음. 이후 홍명보 감독 만난 후 최종 순위를 매겨서 여러분에게 보고를 드릴 예정
- 나는 내가 인터뷰하고 순위를 매겨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할 의무가 있음. 최종 보고를 위원님들에게 하겠음
- 여러분들과 마무리를 짓는게 맞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음
- 제가 화요일에 인터뷰하고 돌아오면 언론에서는 알 것이고, 위원회와 소통을 가졌냐고 물어볼 것이고...숨기는 건 말이 안되고, 참석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도 공유를 해서...
- 2명의 인터뷰와 홍명보 감독을 만난 후 최종 보고 후 위원님들의 생각을 듣겠음. 제 의사와 관계없이 여러분들과 마무리를 하고자 함

- 11) (●●● 진술) 7월 7일에 위원분들에게 전화하여 “지금 시간도 촉박하고 내부 정보가 유출되니 최종 후보 3명에 대한 최종 결정을 제가 할 수 있게 해주면 안 되겠냐”라고 말씀드렸고 모두들 동의해 주셨음. 제가 7월 7일에 위원들에게 전화를 드린 이유는 제가 6. 30. 온라인 회의를 하면서 인터뷰 결과를 위원들에게 보고하기로 했는데 그러지 못한 점이 마음에 걸려 제가 최종 결정을 해도 되겠냐는 동의를 받고자 전화를 한 것이었음. 전화 통화 이후 바로 내정 발표를 해야 하는 촉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홍명보 감독이 내정됐다는 사실을 별도로 위원들에게 얘기하지는 못했음
- 12) 축구협회는 7월 7일 14시에 홍명보 감독 내정 사실을 언론에 공지하였는데, ●●● 이사는 13시 10분경부터 13시 24분경까지 ≡≡≡, ☹☹☹, ≪≪≪, ≫≫≫ 위원 등에게 전화를 걸었으며, 통화 시간은 평균 약 1분 46초임
- 13) (●●● 진술) 제가 전력강화위원들에게 보고한다는 약속을 못 지켰기 때문에 도의적으로 예의를 갖춰야 한다는 마음으로 7월 7일에 다시 전화를 드려 최종 결정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것임
- 14) (●●● 진술) ▽▽▽, ▼▼▼과의 계약 협상은 행정지원팀 ■■■■■가 했고, 연봉 협상 자리에 제가 참여하지도 않았음. 연봉에 대해서는 저는 권한도 없었고 전혀 관여하지 않았음. 홍명보 감독과 대면 면담을 할 때도 저는 연봉에 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고, 홍명보 감독도 연봉이나 처우에 대해서는 모르는 상태로 다음 날 아침에 감독직을 수락하였음
- 15) (행정지원팀 ■■■■■) ●●● 이사는 ▽▽▽, ▼▼▼과 인터뷰 한 후에 감독들과 자리를 떴으며, 통상 계약 협상은 감독들과 직접 하지 않고 에이전트와 하게 되는데 그 자리에 ●●● 이사는 참석하지 않음. 홍명보 감독의 경우에는 ■■■■■장으로부터 연봉 등 계약 내용을 전해 듣고 계약서를 준비하였음 (■■■■■장) 통상적으로 국내 감독 계약은 행정지원팀에서 진행하는데, 홍명보 감독의 경우는 당시 경영본부장과 ◆◆◆ 상근부회장에게 보고하면서 제가 계약 협상을 진행했음

일시	주요 내용
2024. 7. 5.	• 홍명보 감독 후보자 대면 면접(●●● 기술총괄이사)
2024. 7. 6.	• 홍명보 감독, ●●● 기술총괄이사에게 감독직 수락 의사 전달 • ●●● 기술총괄이사, ◆◆◆ 상근부회장에게 홍명보 감독 수락 사실 전달 및 1~3순위 보고(1순위: 홍명보, 2순위: ▼▼▼, 3순위: ▽▽▽)
2024. 7. 6. ~ 7. 7.	• 축구협회(행정지원팀)-홍명보 감독과 계약 조건 협상, 계약서 작성
2024. 7. 7.	• ●●● 기술총괄이사, 온라인 임시회의에 참여한 전력강화위원 5명과 통화* * 최종 감독 결정을 ●●● 이사 본인이 하겠다는 것에 대해 위원들의 동의를 받고자 통화 • 축구협회, 홍명보 감독 내정 사실을 언론에 공지
2024. 7. 8.	• ●●● 기술총괄이사, 기자회견을 통해 홍명보 감독 내정 사실 정식 발표

주: 전력강화위원회 온라인 회의 구성 요건 검토 결과, 「정관」 상에는 분과위원회 구성 요건(7인 이상)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고 의사정족수·의결정족수에 대한 규정은 없는데, 위원들의 명확한 사임 시점(온라인 회의 이전 인지, 이후 인지 여부)에 대해 축구협회 관계자들의 답변 및 진술이 상이한 상황으로, 온라인 회의 진행 당시 분과위원회 구성 요건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

② 홍명보 감독 면접 과정의 불투명·불공정성

- 공정하고 투명한 지도자 선발을 위해 감독 후보자 면접 등 관련 자료는 기록으로 남겨 보관하여야 하나, [표 4]와 같이 홍명보 감독 후보자와의 면접은 7명의 외국인 감독 후보자와의 대면·비대면 면접¹⁶⁾ 때와는 달리, **참관인 없이 ●●● 이사 단독으로 면접을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관련 면접자료도 별도로 남기지 않는 등 실제 면접이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는 상황**
 - 이에 대해 ●●●는 홍명보 감독 후보자와 면담 시 외국인 감독 후보자들에게 한 인터뷰 질문지를 바탕으로 질문을 하였고, 당시 메모로 남겨 놓았으나 메모를 따로 보관하지는 않았으며, 면담 후 메모 내용을 바탕으로 별도로 정리한 자료가 있다고 하였으나, 실제 면접이 어떤 내용과 방식으로 진행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음¹⁷⁾
- 또한 △△△ 위원장은 홍명보 감독 후보자와는 대면·비대면 면접을 진행하거나 면접 요청도 하지 않은 채,¹⁸⁾ 2024. 6. 27. 회장에게 홍명보 감독을 1순위로 추천한 것으로 확인되며,
 - ●●● 이사는 홍명보 감독 후보자를 만나기 위해 자택 근처에서 약 4~5시간 동안 기다리고,¹⁹⁾ 국가대표팀 감독직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²⁰⁾하는 등

16) 외국인 감독 후보자와의 비대면 면접 과정은 영상자료로 남아있으며, 대면 면접 시 사전에 인터뷰 질문지를 작성하고 답변 내용을 바탕으로 평가한 것으로 확인됨

17) 축구협회는 ▼▼▼, ▽▽▽, 홍명보 감독의 대면 면접 자료(인터뷰 질문에 대한 답변)가 외부로 노출될 경우 협회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나아가 차기 감독 선임과정에서 유능한 감독들이 자신들의 개인적인 의사 및 사생활이 공개될 것을 우려하여 지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감독들의 답변 내용은 공란 처리하여 감사자료로 제출

18) (△△△ 위원장 진술) 당시 홍명보 감독에게는 면담 요청을 하지 않았고, 다만 개인적으로 다른 일로 전화 통화를 한번 한 기억은 있음

외국인 감독 후보자들을 면접할 때와는 다른 태도를 보임

[표 4] 외국인 감독 후보자 vs 홍명보 감독 후보자 면접 상황

구분	감독 후보자	비대면 면접			대면 면접		
		일시/장소	참석자	관련 자료	일시/장소	참석자	관련 자료
1차	●●● (1순위)	2024.4.11./ 축구협회 3층	△△△ 위원장, UUU, >>>,> >>> 위원, 기술본부장	영상회의록, 인터뷰 질문지 및 답변 자료	2024.4.18./ 런던	△△△ 위원장, >>> 위원, 매니저	인터뷰 질문지 및 답변·평가 자료
	●●● (2순위)				2024.4.21./ 카타르 도하		
	☐☐☐	2024.4.12./ 축구협회 3층			- ¹⁾	-	-
	☐☐☐ (3순위)	2024.4.14./ 축구협회 3층			2024.4.19./ 리스본	△△△ 위원장, >>> 위원, 매니저	인터뷰 질문지 및 답변·평가 자료
	☐☐☐ (4순위)				2024.4.20./ 이스탄불		
2차	▼▼▼ (2순위)	2024.6.25./ 축구협회 3층	△△△ 위원장, ●●● 이사, 기술본부장	영상회의록, 인터뷰 질문지 및 답변 자료	2024.7.3./ 마드리드	●●● 이사, ^^^ 본부장, 매니저	인터뷰 질문지 및 답변 자료 (답변 공란 처리)
	▽▽▽ (3순위)				2024.7.4./ 프랑크푸르트		
		홍명보 (1순위)	-	-	-	2024.7.5./ 자택 근처 카페 ²⁾	●●● 이사

주: 1. ☐☐☐는 당시 세네갈 출장 일정으로 대면 면접 불가

2. 홍명보 감독의 지인이 운영하는 가게(커피숍/빵집)에서 면담 진행(●●● 이사 진술)

③ 이사회 선임 권한 형해화

○ 축구협회는 클린스만 감독을 포함한 각급 대표팀의 지도자 선임 시 이사회 선임 절차를 지속적으로 누락 해 오다가, 2024. 2. 27. ☐☐☐ 임시 감독 선임 시 이사회 선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력강화위원회에서 권한 없이 임시 감독을 선임했다는 비판이 일자,

- 2024. 5. 28. 제3차 이사회에서 ‘추인사항’으로 ‘월드컵 2차 예선(3월, 6월) 국가대표팀 임시 감독(☐☐☐, V V V) 및 코칭스태프 선임’ 건을 상정하여 추진받으면서, 통상 감독 선임은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선임·발표되고 절차상 이사회를 통해 추진한다고 안내²⁾)

19) (●●● 진술) 제가 귀국해서 홍명보 감독에게 문자를 보내 집 앞에서 만나 뵙고자 했는데 홍 감독님이 경기 끝나고 오시면서 10시 반쯤 연락이 와서 기다렸음. 제가 6~7시쯤 홍명보 감독 자택 근처 커피숍에서 업무를 보면서 기다렸음

20) ●●● 이사는 2024. 7. 8. 홍명보 감독 선임 관련 브리핑에서 “7월 5일 금요일 경기를 마치고 돌아오는 홍명보 감독님 집 앞에서 밤 11시경에 만났다. 홍명보 감독님에게 몇 차례 한국의 철학과 게임 모델을 연결해서 A대표팀과 연령별 대표팀의 연속성과 발전을 위해 헌신해 달라는 부탁을 몇 차례나 드렸다”라고 발언하였는데, 이에 대해 ●●● 이사는 “홍명보 감독과 면담 후 홍명보 감독을 1순위로 판단하고 면담 마지막 부분에서 감독 직을 맡아줄 것을 고려해 달라고 얘기하였는데, 부탁이라는 표현보다는 요청이 맞는 표현 같고, 부탁이라고 표현한 것은 본인의 불찰인 것 같다”라고 진술함

21) (☐☐☐팀장) “축구협회의 국가대표팀 운영규정을 보면 국가대표 감독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통상 감독의 선임에 관련해서는 전력강화위원회에서 보안을 유지한 가운데 선임이 되고 바로 발표가 되기 때문에 절차상 이사회를 통해서 추진하는 그런 과정을 밟고 있음”(제3차 이사회 회의록)

- 그런데 홍명보 감독 선임 시에는 2024. 7. 8. ●●● 기술총괄이사가 홍명보 감독 내정 사실을 발표하고, 2024. 7. 10. ~ 7. 12. 이사회에서 서면결의를 통해 ‘남자 국가대표 감독 선임(안)’을 승인한 후 2024. 7. 13. 홍명보 감독을 정식 선임하였는데,
 - 이에 대해 축구협회는 전력강화위원회는 이사회의 자문기구이고, 그 역할은 감독 선임을 최종 승인하는 이사회의 업무를 돕기 위하여 여러 후보들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후보를 이사회에 추천하는 것²²⁾이라며,
 - 기존 2024. 5. 28. 이사회에서 밝혔던 입장(전력강화위원회에서 감독 선임·발표 후 이사회 추진)을 변경하는 등 상황에 따라 자의적으로 규정을 다르게 해석·적용
- 이사회는 축구협회의 최고집행기관으로서 관련 규정에 따라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추천한 감독을 선임²³⁾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축구협회에서 감독을 이미 내정·발표한 이후 이사회를 거치는 것은 이사회의 권한을 형해화하는 부당한 행위라고 판단**되는데, 실제 이사회의 서면결의 과정에서 일부 이사들은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²⁴⁾한 것으로 확인

④ 허위 보도설명자료 배포

- 축구협회는 홍명보 감독선임 과정을 둘러싸고 절차와 과정 등에 대한 비판이 일자 2024. 7. 22. 보도설명자료 2건(‘국가대표팀 선임 과정을 설명드립니다’, ‘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Q&A’)을 작성·배포하였는데, 감사 결과 [표 5]과 같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확인됨
 - 특히 2024. 6. 30. 전력강화위원회 온라인 회의에서 전력강화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는 안에 대해 논의했다거나 ●●● 이사가 ‘면담→협상→감독 내정 후 이사회 추천’ 권한을 위원들로부터 위임받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고,²⁵⁾ 실제 ●●● 이사가 아닌 행정지원팀장이 계약 협상을 진행
 - 또한 홍명보 감독 후보자가 제10차 전력강화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최다 추천을

22) 2024. 7. 22. 축구협회 보도설명자료(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관련 Q&A), ‘전력강화위원장 사의 표명 후 협회 기술총괄이사가 최종면담, 협상 등을 이어받은 것에 대한 규정상 설명’ 중 관련 내용 언급

23) ‘선임’의 사전적 의미는 ‘여러 사람 가운데서 어떤 직무나 임무를 맡을 사람을 골라냄’임

24) (☆☆☆ 이사 서면결의 의견) 선임 감독 선임에 반대 의견은 없음. 단 축구협회 사외이사로서 진행과정에 단 하나의 정보나 설명도 못받은 상태로 부정적인 언론보도만 접하면서 단순 요식행위에 가부판정으로 의견을 낸다는 것에 유감을 표함

(★★★ 이사 서면결의 의견) 차기 국내감독은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했으면 좋겠음

25) 규정상 국가대표팀 감독은 전력강화위원회의 추천으로 이사회가 선임한다고 되어 있어, 전력강화위원회는 감독 추천 권한이 있을 뿐, 계약 협상이나 감독 내정 권한이 없음

받은 것처럼 표현되어 있으나, 감사 결과 ▽▽▽ 감독 후보자와 공동 1위였던 것으로 확인

[표 5] 축구협회 보도설명자료 오류

보도설명자료 내용	감사 결과
비상상황(전력강화위원장이 갑작스럽게 사퇴 등)을 대비한 규정이 미비했음	- 정관 제49조에 따르면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및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장 사임 시 부위원장이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음에도, 축구협회는 전력강화위원회 구성 시 부위원장을 위촉하지 않음 - 또한 정관 제30조에 따르면 이사가 사임할 경우에는 사임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사임서 제출과 동시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데, △△△ 위원장은 6. 28. 사의를 표명하였으나 사임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후 7. 16. 사임서를 제출하면서 사임일을 6. 28.자로 작성·제출한 것으로 확인
제5차 전력강화위원회에서 97명 중 1차 후보 11명 (외국인 6명, 한국인 5명 선정)	후보 11명(외국인 7명, 한국인 4명 선정)
제10차 전력강화위원회에서 각 위원들이 선호 후보자를 복수 추천, 이 결과 토대로 후보자를 4명으로 압축 (4명 중 홍명보 감독 최다 추천)	4명 중 홍명보 감독 후보자와 외국인 감독(▽▽▽) 후보자가 공동으로 최다 추천
6월 30일 전력강화위원회와 온라인 회의에서 △△△위원장 사의 표명에 따른 후속 방안 논의 1안) 전력강화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는 안 2안) 최종 후보 3인에 대한 후속 절차(면담→협상→감독 내정 후 이사회 추천)를 ●●● 기술총괄이사가 이어받아 진행하는 안 - 위 두가지 방안 중 2안으로 진행할 것을 참석 위원 전원 동의 - 참석 위원 전원은 ●●● 기술총괄이사에게 감독 추천과 관련한 절차의 진행을 위임하는데 동의	6월 30일 전력강화위원회 온라인 회의에서 '1안) 전력강화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는 안'에 대해서는 논의한 바 없으며, ●●● 이사에게 '면담→협상→감독 내정 후 이사회 추천' 권한을 위임한 바도 없음

④ 관계기관 의견

- 축구협회는 정관과 국가대표팀 운영규정을 해석·적용하면, 감독 선임 관련 절차를 담은 상세 규정·세칙이 없어 명문화된 내용이 부재한 면이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금번 감독 선임 관련 과정 및 결과가 일률적으로 위반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하였으며,
- 규정상 현실 반영을 못하는 부분 등 미비한 점들을 앞으로 보완하여 실무 운영에 반영하겠다고 하면서도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함

<클린스만 감독 선임의 경우>

① 전력강화위원회 무력화에 대한 의견

- 제1차 전력강화위원회에서 ▲▲▲ 위원장에게 권한을 위임해서 감독 선임

절차를 진행하는 방안이 안전으로 상정되어 논의가 되었고, 위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 결과 해당 방안을 채택하였음

- 따라서 협회가 전력강화위원장에게 감독 선임 권한을 위임하기로 사전에 내부방침을 미리 정한 것은 아님

○ 또한, '감독 선임의 전체적인 과정을 ▲▲▲ 위원장에게 위임하되, 필수적인 정보는 위원회에 반드시 공유 및 점검토록 한 것'도 아님

- 당시 필수적인 정보의 공유를 요구한 것은 일부 위원의 의견이었을 뿐, 위원회가 최종적으로 그렇게 결정한 것은 아님

- 제1차 전력강화위원회 회의록 중 주요내용 발췌 부분은 그 당시 상당한 분량의 회의록 내용을 주요 쟁점 위주로 매우 축약하여 정리한 것인데, 축약 및 편집 과정에서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게 정리된 측면이 있음

○ 후보자 명단 또는 면접 결과 최종 후보자 추천순위 등을 전력강화위원들과 공유하지 않은 것은 비공개로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한 제1차 전력강화위원회의 회의 결과에 따른 것이고, 특히 일련의 과정에서 언론에 정보들이 유출되어 협상력이 저하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었던 바,

- 의도적으로 전력강화위원회를 무력화하거나 배제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으며 조언과 자문이라는 전력강화위원회의 역할은 충분히 수행되었음

② 감독 추천 권한이 없는 회장의 최종 면접 진행에 대한 의견

○ ▲▲▲ 위원장이 진행(2023. 1. 30. ~ 2. 1.)한 면접과 회장의 진행(2023. 2. 8. ~ 2. 9.)한 면담은 성격이 다른 것임

- 회장 면담의 목적은 두 후보의 이야기를 듣고, 향후 대표팀 운영에 필요한 지원 사항 등을 청취하는 것이었고, 회장의 면담을 '면접'이라고 표현한 것은 편의상 일련의 만남의 과정을 표현한 것이었을 뿐, 그 실질에 있어서 감독 후보자 선정을 위한 면접은 아니었음

○ 또한, 「정관」상 협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서 회장이 위와 같이 최종 후보자의 의견 청취를 위해 이들을 만나지 못할 이유는 없었고,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도 없었음

- 그래서 회장 면담 시 기록이나 평가도 별도로 하지 않음

③ 최종 면접 과정 불투명에 대한 의견

○ 회장과 최종 후보자들과 '화상 미팅'은 회장의 직무 범위 내에서 캐주얼하게

진행된 것으로서 전력강화위원장이 정한 순위에 영향을 미치거나 감독 후보자 선정을 위한 절차로서 마련된 자리가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별다른 기록을 남길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던 것임

④ 이사회 선임 절차 누락에 대한 의견

- 규정 그대로 이사회 선임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하나, 규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은 일부 존재함
- 임박한 A 매치 일정 등 제반 여건상 이사회 개최를 즉시 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 등도 있었음

⑤ 허위 반박자료배포에 대한 의견

- 2024. 5. 5.자 협회의 보도자료는 감독 후보자 선정 과정에서 후보자들을 여러 차례 만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등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음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임
- 또한, 회장의 2024. 2. 16.자 기자회견 발언도 위와 같은 협회의 노력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발언들일 뿐임
- 협회는 달리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의도적으로 사실과 다른 발표나 발언을 한 것은 아니고,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은 취지에서 다소 과장되거나 부정확하게 표현된 것일 뿐인바,
- 해당 반박자료나 회장의 발언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이를 무시하고 지엽적으로 접근하여 지적하는 것은 부당함

〈홍명보 감독 선임의 경우〉

① 감독 추천 권한이 없는 ○○○ 이사의 최종 감독 추천에 대한 의견

- 국가대표팀 감독 추천 권한 위임은 2024. 6. 21. 제10차 전력강화위원회 회의 때 이미 △△△ 위원장에게 다 이루어졌고, 이로써 대표팀 감독 선임에 있어서 전력강화위원회의 기능은 종료됨
- 그런데 그 이후 △△△ 위원장이 3명으로 후보를 정한 뒤 2024. 6. 28. 갑자기 사의를 표명하면서, 최종 후보들에 대한 대면 협상 진행 및 이사회 추천 등은 협회가 대신하여 진행해줄 것을 요청하였음
- 전력강화위원 전원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 위원장이 협회에 해당 역할을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므로, 그 의사에 따라 협회는 ○○○ 이사에게 해당 업무를 이어받아 진행할 것을 전달하였음

- 위와 같은 내용을 공유하고자 2024. 6. 30. 임시회의가 진행되었고, 임시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전원이 ●●● 이사의 절차 진행에 대해서 동의하였음
- 따라서 감사 결과 '2024. 6. 30. 온라인 회의에서 ●●● 이사가 최종 감독 후보자 3인에 대한 면접 진행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확인된다'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임
- 즉, ●●● 이사가 감독 후보자 추천의 후속 절차를 실행하게 된 것은 제10차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결정한 내용 및 △△△ 위원장의 사퇴에서 표명된 협회에 후속 업무를 맡기는 일련의 과정에 따른 것이었지, 결코 ●●● 이사가 2024. 6. 30.자 회의에서 권한을 위임받은 것이 아니었음
- 따라서 ●●● 이사의 업무 진행은 적법하게 개최되어 완전하게 의결된 제10차 전력강화위원회의 결정 및 △△△ 위원장에게 위임된 권한을 협회가 이어 받는 일련의 과정에 근거한 것이므로, ●●● 이사에 대해서 '감독 추천 권한이 없었다'고 지적하는 것은 명백히 부당함
- 비록 ●●● 이사가 당초 6. 30.자 온라인 회의에서 발언한 대로 발표 전에 최종 보고를 위원들에게 하겠다고 한 것을 지키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 근거한 업무 진행이 권한이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그러한 취지의 지적은 오히려 전혀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임

② 홍명보 감독 면접 과정의 불투명·불공정성에 대한 의견

- 협회 관련 규정상 평가표를 만들거나 문답 자료를 만들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규정 위반을 문제 삼을 수 없고 '관련 자료를 기록으로 남겨 보관하여야 한다'는 정당론의 수립을 인정할 근거가 없음
- 또한 감사 결과에서는 '●●● 이사가 면접 시 4~5시간 기다리는 것'을 문제 삼고, 면접 장소를 자택 근처 카페로 기재하고 있는데, 이런 관점에서라면 외국 감독을 만나러 협회에서 4인이나 되는 인원이 수일간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유럽으로 출장을 간 점과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고, 유럽에서의 면접 장소는 기재하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홍명보 감독에 대한 면접 장소도 다른 감독들이 도시명을 기재한 것처럼 '서울'이라고 기재하는 것이 타당함
- 결국 외국인 감독 후보자와 홍명보 감독의 면접 상황을 불합리하게 자의적인 관점에서 비교하고, 마치 홍명보 감독의 면접 상황에 특혜가 있는 것처럼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다는 점에서 명백히 부당함

- 만일 이번 사태에서 제기되는 지적대로 향후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면, 앞으로 국내 감독, 특히 현직인 국내 감독들을 뽑기 위해서는 그들로 하여금 공개적으로 지원을 하게 하여야 하고, 무엇보다 면접장으로 나오라고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 하는 결과가 되는데, 실제 이렇게 진행할 시에는 감독들이 현 소속팀과의 관계가 불편해질 것을 우려하여 면접에 응하지 않는 등 감독 선임에 매우 큰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 명약관화함. 이러한 결과는 외국 감독들 역시 현직에 있는 감독들은 이러한 면접에 응하기 어렵다는 점은 마찬가지임

③ 이사회 선임 권한 형해화에 대한 의견

- 규정상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의 이사회 서면결의에 절차적 문제점 없으며, 이사회의 권한이 침해된 부분 없음
 - 이사회는 언제든지 내정한 감독에 대해 부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로 이번 이사회에 충분한 자료를 제공했고, 반대 의견을 표명한 이사도 있었음

④ 허위 보도설명자료 배포에 대한 의견

- 여러 사람들이 관련된 다양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정리하는 과정에서 전혀 의도하지 않은 일부 오류나 불충분하게 표현된 부분이 있었던 것은 부인하지 않음
- 앞서 밝힌 바와 같이 ●●● 이사는 2024. 6. 30. 온라인 회의에서 감독 선임 및 협상 권한을 위임받은 것이 아님. 이미 2024. 6. 21.자 제10차 전력강화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수행하는 과정이었음
 - 이 과정에서 사실과 진실을 외부에 밝히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어떠한 왜곡이나 축소의 의도도 없었음

⑤ 관계기관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

- 축구협회는 클린스만 감독 선임과 관련하여, ▲내부방침으로 전력강화위원회를 무력화하거나 배제하지 않았고, 회의록 주요 내용은 회의록 축약 및 편집 과정에서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게 정리된 것이며, ▲회장이 감독 후보자 최종 면접을 진행하거나 후보자를 평가하지 않았고, 직무 범위 내에서 진행된 의견 청취 자리였기 때문에 별다른 기록을 남기지 않았으며, ▲반박자료나 회장의 기자회견 발언은 의도적으로 사실과 다른 발표나 발언을 한 것은 아니고 다소 과장되거나 부정확하게 표현된 것일 뿐,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

- 한편, 규정 그대로 이사회 선임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규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도 일부 존재한다는 의견 제시
- 또한 홍명보 감독선임과 관련하여서는, ▲●●● 이사의 업무 진행은 제10차 전력강화위원회의 결정 및 △△△ 위원장에게 위임된 권한을 협회가 이어받는 일련의 과정에 근거한 것이므로 ●●● 이사가 ‘감독 추천 권한이 없었다’고 지적하는 것은 부당하며, ▲홍명보 감독의 면접 상황에 특혜가 있는 것처럼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고, ▲이사회 서면결의에 절차적 문제점이 없고, 이사회의 권한이 침해된 부분도 없으며, ▲보도설명자료는 전혀 의도하지 않은 일부 오류나 불충분하게 표현된 부분이 있었던 것은 부인하지 않으나 사실과 진실을 외부에 밝히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고, 이 과정에서 어떠한 왜곡이나 축소의 의도도 없었다는 의견을 제시
- 그러나 축구협회의 위와 같은 의견은 감사 과정에서 이미 검토된 내용이거나, 축구협회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타당한 근거나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축구협회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특히, 축구협회는 ●●● 이사의 권한 없는 감독 추천과 관련하여,
 - 당초에는 보도설명자료 등을 통해 2024. 6. 30. 전력강화위원과 온라인 회의를 통해 참석위원 5명 전원이 ●●● 이사에게 최종 후보 3인에 대한 후속 절차(면담→협상→감독 내정 후 이사회 추천)의 진행을 위임하는데 동의하였고, 2024. 7. 7. ●●● 이사가 온라인 회의에 참가했던 전력강화위원 5명과 통화하여 ‘최종 후보 3인 면담→감독 내정→이사회 추천’ 등의 권한을 ●●● 이사에게 위임했던 당시 합의를 확인하고 다시 한번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다가,
 - 감사 과정에서 관련 영상회의록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 이사가 전력강화위원들로부터 감독 추천(우선순위 결정) 권한을 위임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자,
 - 축구협회는 입장을 번복하여, 감독 선임에 있어서 전력강화위원회의 기능은 제10차 전력강화위원회 회의 때 △△△ 위원장에게 감독 추천 권한을 위임하는 것으로 이미 종료되었고,
 - 전권을 위임받은 △△△ 위원장이 2024. 6. 28. 갑자기 사의를 표명하면서 협회에 최종 후보자들에 대한 대면 협상 진행 및 이사회 추천 등은 협회가

대신하여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여,

- 협회는 해당 역할을 진행할 책임자인 ●●● 기술총괄이사에게 해당 업무를 이어받아 진행할 것을 전달하였기 때문에 ●●● 이사에 '감독 추천 권한이 없었다'고 지적하는 것은 명백히 부당하며,
- 또한 2024. 6. 30. 온라인 회의는 그 회의의 성격이나 절차 측면에서 어떠한 권한 부여를 결정할 수 있는 회의가 아니고, 그 회의를 감독 후보자 추천의 후속 절차에 있어 면접 진행 권한과 감독 결정 권한을 특정인에게 위임할 수 있는 회의로 인정할 아무런 규정상 및 사실상의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주장

○ 축구협회의 위와 같이 반복된 주장에 대해 검토한 결과,

- 축구협회는 2024. 6. 28. △△△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최종 후보자들에 대한 대면 협상 진행 및 이사회 추천 등은 협회가 대신하여 진행해 줄 것으로 요청하였다고 주장하나,
- △△△ 위원장은 협회에 그러한 요청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²⁶⁾ △△△ 위원장의 요청으로 △△△ 위원장의 권한을 협회가 이어받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 또한 전력강화위원회는 계약 협상 권한이 없기 때문에 통상 협상 결렬에 대비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3~5배수의 감독 후보자를 축구협회에 추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²⁷⁾ △△△ 위원장이 전력강화위원회의 권한도 아닌 대면 협상 진행을 협회에 요청하였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움
- 설사 △△△ 위원장이 본인이 위임받은 권한을 협회에 재위임해 주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하더라도, 당초 전력강화위원회에서 △△△ 위원장에게 협회에 재위임할 권한까지 위임했다고 보기 어렵고, ●●● 이사는 전력강화위원장으로 위촉된 사실이 없어 국가대표팀 감독 추천에 관여할 권한이 없으므로 협회(●●● 이사)에 감독 추천 권한이 있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26) (△△△ 위원장 진술)

(문) 6월 28일 오전 당시 사의 표명 상황에 대해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 회장 보고 후 그 다음날 ㉠㉠㉠ 팀장에게 내 역할은 여기까지인 것 같다고 얘기하면서 사임하겠다고 했고, 당시 ㉠㉠㉠ 팀장에게 구체적인 사임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문) 당시 ㉠㉠㉠ 팀장에게 이후 감독 선임에 대한 후속조치는 협회에서 맡아서 해달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답) 아니요. 그런 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

27) (△△△ 위원장) 협회에서 정관상 전력강화위원회는 감독 후보자 추천만 할 수 있고 협상 테이블에는 못 들어간다고 얘기해서 협상 진행 과정을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함

- 한편, 축구협회는 △△△ 위원장이 최종 감독 후보자 3명(1순위: 홍명보, 2순위: ▽▽▽, 3순위: ▼▼▼)을 회장에게 보고하였기 때문에 3명의 감독 후보자를 협회에 추천하는 것으로 전력강화위원회의 기능은 종료되었고 협회는 이후 후속 절차(대면 협상 진행 및 이사회 추천)를 ●●● 이사에게 맡겨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 축구협회에서는 △△△ 위원장이 추천한 우선순위대로 대면 협상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 ●●● 이사가 감독 후보자 3명에 대해 대면 면접을 진행한 후 감독 후보자 추천 우선순위를 다시 결정(1순위는 동일, 2, 3순위는 변동)하여 협회에 보고한 것임
- 따라서 ●●● 이사는 전력강화위원회에서 해야 할 역할을 권한 없이 대신 한 것이며, 계약 협상 과정에는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 이사가 전력강화위원회 기능 종료 후 후속 조치를 진행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별표 1] 클린스만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

일시	주요 내용
2023. 1. 4.	• 축구협회, ▲▲▲ 선임 전력강화위원장 선임 발표
2023. 1. 12.	• ▲▲▲ 위원장, 감독 후보군 61명 작성→ 23명으로 압축
2023. 1. 18.	• 축구협회 이사회 및 대의원 총회 개최→ ▲▲▲ 위원장 공식 선임 • 후보자 접촉 에이전트 선임→ 감독 후보자 23여 명 접촉 시작
2023. 1. 19.	•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위촉(총 7명)
2023. 1. 25.	• 제1차 전력강화위원회 온라인 회의 - 감독 선임 기준 및 절차 논의 - 감독 선임 과정(후보자 추천 및 인터뷰 등)에 대한 권한을 ▲▲▲ 위원장에게 위임
2023. 1. 26.	• 감독 후보자 5명으로 압축 및 온라인 인터뷰 일정 협의
2023. 1. 30. ~ 2. 1.	• 1차 온라인 면접(▲▲▲ 위원장, □□□)
2023. 2. 7.	• ▲▲▲ 위원장, 회장에게 1차 온라인 면접 결과* 보고 * (1순위) 클린스만- (2순위) ●●●- (3순위) ◎◎◎ - (4순위) ◇◇◇- (5순위) ◆◆◆
2023. 2. 8. ~ 2. 9.	• 2차 온라인 면접(회장, ■■■) * (1~2순위 후보자) 클린스만, ●●●
2023. 2. 15. ~ 2. 24.	• 축구협회-클린스만 후보자와 계약 조건 협상 및 계약 체결(2. 24.)
2023. 2. 27.	• 제2차 전력강화위원회 회의 - 클린스만 감독 선임 경과 보고
2023. 2. 28.	• ▲▲▲ 위원장, 클린스만 감독 선임 발표
2023. 3. 2. ~ 3. 8.(미국)	• ▲▲▲ 위원장, 클린스만 감독과 대면 면담·협의* * 코칭스태프 및 국가대표팀 일정 등 협의, 비자 발급 지원

[별표 2]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

일시	주요 내용
2024. 2. 20.	• 축구협회, △△△ 신임 전력강화위원장 선임 및 전력강화위원 구성 발표(총 11명)
2024. 2. 21. ~ 4. 2	• 제1차 ~ 제5차 전력강화위원회 회의 - 감독 선임 기준·방법, 일정, 국내 감독 vs 외국인 감독 등 관련 논의 - 감독 후보자 풀(Pool) 구성(97명) 및 압축(11명), 면접 질문항목 검토·논의 - 3월 월드컵 예선 임시 감독(㉸㉸㉸) 결정
2024. 4. 11. ~ 4. 14.	• 후보자 5명 온라인 면접 (△△△ 위원장, U U U, >>>, ≡≡≡ 위원, 기술본부장) * (후보자) ㉸㉸㉸, ㉸㉸㉸, ㉸㉸㉸, ㉸㉸㉸, ㉸㉸㉸
2024. 4. 18. ~ 4. 21.(영국, 포르투갈, 튀르키예, 카타르)	• 후보자 4명 대면 면접 (△△△ 위원장, >>> 위원, ㉸㉸㉸ 매니저) * (후보자) ㉸㉸㉸, ㉸㉸㉸, ㉸㉸㉸, ㉸㉸㉸
2024. 4. 30.	• △△△ 위원장, 회장에게 대면 면접 결과 (남자 국가대표팀 감독 후보 브리핑*) 보고 * 남자 대표팀 감독 최종 후보 : 2인 요약(㉸㉸㉸, ㉸㉸㉸) • 제6차 전력강화위원회 회의 - 대면 면접 결과 공유, 1~4순위* 후보자 선정 및 축구협회에 계약 협상 요청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 1, 2순위까지 협상이 안될 경우 다른 대안 검토
2024. 4. 30. ~ 5. 17.	• 축구협회(경영본부장)-1, 2순위 후보자(㉸㉸㉸, ㉸㉸㉸) 와 계약 조건 협상, 협상 결렬¹⁾
2024. 5. 20. ~ 6. 21.	• 제7차 ~ 제10차 전력강화위원회 회의 - 감독 후보자 추천 원점에서 재논의, 6월 월드컵 예선 임시 감독(V V V) 결정 - 감독 후보자 17명 재선정, 경력·영상자료 등 확인·토론 후 추천 우선순위 결정 * (공동 1순위) ∇∇∇, 홍명보, (공동 2순위) ▼▼▼, ㉸㉸㉸ (3순위) ◆◆◆ - 감독 후보자 면접 및 최종 추천 권한을 △△△ 위원장에게 위임
2024. 6. 25.	• 후보자 2명 온라인 면접 (△△△ 위원장, ㉸㉸㉸ 기술총괄이사, ^ ^ ^ 기술본부장) * (후보자) ∇∇∇, ▼▼▼
2024. 6. 27.	• △△△ 위원장, 회장에게 전력강화위원회 추천 최종 후보자 3명* 보고 * (1순위) 홍명보, (2순위) ∇∇∇, (3순위) ▼▼▼
2024. 6. 28.	• △△△ 위원장, 축구협회에 구두로 사의 표명
2024. 6. 30.	• 전력강화위원회 임시 온라인 회의(㉸㉸㉸ 기술총괄이사, 위원 5명 ²⁾ , 기술본부장) - ㉸㉸㉸ 기술총괄이사가 최종 3명의 감독 후보자와 대면 면접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전력강화위원회에 공유하고 의사결정하는 것으로 동의
2024. 7. 3. ~ 7. 4.(스페인, 독일)	• 감독 후보자 2명 대면 면접 및 계약 협상·조율(㉸㉸㉸ 기술총괄이사, ^ ^ ^ 기술본부장, ㉸㉸㉸ 매니저) * (후보자) ▼▼▼, ∇∇∇
2024. 7. 5.	• 홍명보 감독 후보자 대면 면접 (㉸㉸㉸ 기술총괄이사)
2024. 7. 6.	• 홍명보 감독, ㉸㉸㉸ 기술총괄이사에게 감독직 수락 의사 전달 • ㉸㉸㉸ 기술총괄이사, ◆◆◆ 상근부회장에게 홍명보 감독 수락 사실 전달
2024. 7. 6. ~ 7. 7.	• 축구협회(행정지원팀)-홍명보 감독과 계약 조건 협상, 계약서 작성
2024. 7. 7.	• ㉸㉸㉸ 기술총괄이사, 온라인 임시 회의에 참여한 전력강화위원 5명과 통화* * 최종 감독 결정을 ㉸㉸㉸ 이사 본인이 하겠다는 것에 대해 위원들의 동의를 받고자 통화 • 축구협회, 홍명보 감독 내정 사실을 언론에 공지
2024. 7. 8.	• ㉸㉸㉸ 기술총괄이사, 기자회견을 통해 홍명보 감독 내정 사실 정식 발표
2024. 7. 10. ~ 7. 12.	• ‘남자 국가대표 감독 선임(안)’ 이사회 서면결의³⁾
2024. 7. 13.	• 홍명보 감독 정식 선임 및 계약 체결(7. 15.)

주: 1. (㉸㉸㉸) 국내 거주 및 세금 등 문제로 감독직 포기함(5. 10. ㉸㉸㉸, 축구협회에 이메일로 포기 의사 전달), (㉸㉸㉸) 현 ㉸㉸㉸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 협회와 계약 종료 전 협상 어려움

2. ≡≡≡, ㉸㉸㉸, ≡≡≡, >>>, <<< 위원

3. 재적 이사 26명 중 23명 참가, 21명 찬성, 1명 반대, 1명 이사회 정식 회부 요청으로 최종 의결